

벼랑 끝 지역경제 활로는 없나

일방적 구조조정 땐 공멸 미분양 해소 대책 급하다

1 건설업 살려야

2 지방은행 BIS 낮추라 3 지역제품 사주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전 업종에 걸쳐 총체적인 난국이다. 특히 지역경제 비중이 큰 건설업은 부진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이다. 이대로 가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3회에 걸쳐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해본다.

김모(37·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는 2년 전 분양받은 수완지구 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않은데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속내다. 김씨는 “연체이자 때문에 속이 상한다”면서도 “이사 갈까지 퇴출당하면 하자보는 어찌되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이 태산이다.

<관련기사 9면>

김씨처럼 입주를 미루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광주시 수완지구 G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됐지만 전체 433세대 중 달랑 3가구만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는 폐기 상태다.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데도 미분양 해소는 커녕 입주 지연으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금난이 극에 달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만3천277가구. 특히 수완지구는 1만2천750세대의 46.3%인 5천908가구가 미분양이며, 입주율도 23%에 그치고 있다. 업계는 전국적으로는 15만5천72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비롯한 미

입주지연 세대 늘어 업계 자금난 패닉

정부 적극 나서 지방경제 붕괴 막아야

입주까지 포함하면 100조원 이상이 둑여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건설업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 만이 답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물 아치기 식 구조조정은 금융논리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절실히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주택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비롯한 지역 주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있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주택 구입 시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금융권의 주택 담보 인정 비율 협행 60%에서 최고 80%까지 상향, 국민주택기금 저리 응자를 통한 중

도금 대출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심어 더 이상의 자산 가치 하락을 막고 불확실성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물 아치기 식 구조조정은 금융논리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설은 설…활기 넘친 농산물시장

민족의 명절인 설(26일)을 앞둔 19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를 앞둔 과일 등 성수 품목이 빠르게 들어차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위직령기자 jwii@kwangju.co.kr



재정장관 윤증현

통일장관 현인택

총리실장 권태신

금융위원장 진동수

따뜻함은 살아 있다

온 한 트럭·신발 수백켤레 익명 기부

민족 대명절인 설(26일)을 앞두고 광주지역에서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의 미담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청사 광장에 30~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1.5t 트럭을 몰고 나타나 4천만원 상당의 남·여 의류 1천500벌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 이 남성은 앞으로도 불우이웃을 위해 의류 지원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는 뜻깊은 말도 남겼다.

북구 서비스연계팀 성유석 계장은 “이 남성이 물품을 내려놓으면서 ‘소외계층에 전해 달라’고 하기에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누군가 대신해 심부름을 했다’는 말만 남기고 활기차리를 떴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날 남·여 의류 1천500벌을 분류한 뒤 22일부터 흘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숨어서 하는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일깨워준 일”이라며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때여서 더욱 반기운 일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 – 장새(장가게) 무안 – 삼해(방곡) 무안 공항 직항!!!

• 무안 – 장새(장가게) 직항!

• 무안 – 삼해(방곡) 직항!

• 무안 – 장새(장가게) 직항!

• 무안 – 삼해(방곡) 직항!

• 무안 – 삼해(방곡) 직항!



中 国 南 方 航 空 광주MBC문화원 광주/전남 북 유명여행사 ☎ 062-226-6070